

# 부천戰 ‘승리의 감동’ 전남戰까지...

광주FC, 내일 안방서 ‘엘로더비’

여름 결승 골 부천戰 1대0  
1R 5승4패 무패행진 마감

2R 첫 경기 전남戰도 필승  
다채로운 팬 서비스는 ‘덤’



프로축구 광주FC가 어린 이날 엘로더비로 홈 팬들을 맞는다.

광주는 4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하나원큐 K리그2 2019 10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1일 부천FC1995와의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45분 여름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광주는 2019시즌 치러지는 총 4라운드 로빈 중 1라운드를 5승4무(승점 19점) 무패로 마무리하게 됐다.

광주는 1라운드에서 뚜렷한 팀 컬러를 보여주며 상승장구 했다. 선봉에는 8경기 9골을 기록한 괴물 공격수 펠리페가 자리했고, 여름-박정수-김준형-최준혁 등은 유기적인 플레이로 팀 공격에 활력을 넣었다.

측면은 발 빠른 김정환과 엄원상, 개인기가 좋은 율리안과 이희균, 활동량이 많은 두현석 등이 분위기를 살렸고, 이요름-이한도-아솔마토프-여봉훈의 수비라인은 9경기(5실점) 중 5경기를 무실점으로 이끌어냈다.

다만, 부산이 승점 2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고, 상대의 견제와 수비가 더 심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묘책을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광주는 이번 전남전에서도 펠리페 없이 치러야 한다.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과 리그 최소 실점(6



지난 1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9라운드 광주FC와 부천FC의 경기에서 후반 45분 결승골을 터트린 광주FC 여름이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실점)으로 든든한 수비와 함께 펠리페를 대신한 조주영과 율리안, 이희균, 김정환 등 2선 공격진의 특점력이 필수다.

광주는 전남과 대결에서 좋은 기억만 남아 있다. 올 시즌 FA컵을 포함해 2경기에서 모두 승리했고, 역대 전적에서도 9승5무5패로 앞서 있다.

하지만 전남이 지난 9라운드 안산그리너스 원정경기에서 0대3 완패를 당하며 잔뜩 독을 품은 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영욱, 한찬희 등 좋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1주일 전 부산을 꺾은 바 있다

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광주는 어린이날 엘로더비를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장외행사로 빼어난 요술공연 및 대형비눗방울 체험, 온 가족 팝업북 만들기 등이 펼쳐지고, RC카, 쿼드콥터, 축구공 등 푸짐한 선물도 준비됐다.

경기에 나설 수 없는 펠리페는 팬사인회를 통해 어린이를 즐겁게 하고, 마블 아이언맨 경품과 미니언즈 콜라보 상품들도 만날 수 있다.

광주가 전남전 승리와 함께 어린이날 큰 기쁨을 안길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

“우리가 한국축구 미래...어게인 1983!”



2019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하는 남자 축구대표팀 정정용 감독과 선수, 코칭스태프가 2일 오후 파주 NFC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 행사에 참가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전고한 수비 바탕 화끈한 공격 축구”

이강인 등 유럽파 5명 ‘정정용호’ 승선...광주FC 엄원상도 합류

“U-20 월드컵을 앞둔 심정을 사자성어로 ‘사소취대’(捨小取大·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정용(50) U-20 축구대표팀 감독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23일-6월 15일·폴란드)에 나서는 각을 묻자 1983년 세계청소년(U-20) 선수권대회에서 거둔 4강 신화의 재현이라는 의미에서 “어게인 1983!”이라고 강조했다.

정 감독은 2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U-20 월드컵에서는 수비만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다”라며 “전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 축구를 추구하겠다. 팬들이 보기에 ‘속이 시원한 축구’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U-20 월드컵을 앞둔 각오를 사자성어로 풀어달라는 질문에 잠시 고민하더니 “사소취대”라고 대답했다.

정 감독은 이날 오전 이강인(발렌시아)과 공격수 정우영(원전)과 미드필드 김정민(리퍼링), 수비수 김현우(디나모 자그레브), 골키퍼 최민수(함부르크) 등 5명의 유럽파 선수들을 주축으로 U-20 월드컵에 나설 21명의 최종명단을 확정했다.

정 감독은 최종명단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대표팀의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하는 이강인(18·발렌시아)에 대해 “공격으로 전환 됐을 때 연결 포인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며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주문했다.

소속팀 사정 때문에 이강인이 조기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이강인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플랜 B는 당연히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어떤 선수든 자신의 역할이 있다. 전체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감독은 “예선을 거쳐 본선까지 함께 하는 선수들 역시 큰 경험을 했다. 선수들은 U-17 월드컵과 U-20 월드컵을 꼭 경험해야 한다”라며 “힘겨운 예선 과정을 이겨낸 만큼 본선 무대는 즐겁게 치러야 한다. 이번 경험이 선수들에게 A대표팀으로 가는 좋은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 FIFA U-20 월드컵 대표팀 최종 명단	
<b>FW</b>	엄원상(광주), 오세훈(아산), 전세진(수원 삼성), 정우영(바이에른 뮌헨), 조영욱(서울)
<b>MF</b>	김세운(대전), 김정민(리퍼링), 고재현(대구), 박태준(상남), 이강인(발렌시아), 정호진(고려대)
<b>DF</b>	김주성(서울), 김현우(디나모 자그레브), 이상준(부산), 이재익(강원), 이지철(대전), 최준(연세대), 황태현(안산)
<b>GK</b>	박지민(수원 삼성), 이광연(강원), 최민수(함부르크)

# 류현진, 올 시즌 최고 역투 불구 ‘4승 무산’

SF戰 8이닝 1실점...팀 패배로 빛바래  
6년만에 8이닝 투구·시즌 첫 무피홈런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눈부신 호투로 올 시즌 최다 이닝을 소화했으나 시즌 4승 달성에는 아쉽게 실패했다.

류현진은 2일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해 8이닝 동안 사사구 없이 삼진 6개를 잡아내며 안타 4개로 1점만을 내줬다.

류현진은 1-1로 맞선 9회 초 타석에서 교체돼 승패 없이 물러나며 평균자책점을 2.96에서 2.55로 낮춘 것에 만족했다.

다저스는 9회 말 2사 1, 2루에서 홀리오 우리아스를 구원한 페드로 바에스가 샌프란시스코의 4번 타자 버스터 포지에게 끝내기 좌전 안타를 내줘 1-2로 패했다.

류현진은 비록 승리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올 시즌 최고의 호투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류현진은 먼저 시즌 처음으로 8회까지 던졌다. 이전 5차례 선발 등판에서는 7이닝 투구만 2차례 있었다.

201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래로는 개인 통산 3번째 8이닝 이상 투구다.

류현진은 2013년 5월29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서 9이닝 완봉승을 거뒀고, 2013년 9월17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8이닝 완투패를 기록했다.

지난달 9일 허벅지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류현진은 지난달 2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에서 7이닝 2실점 호투로 건강함을 증명했다.

부상 복귀 후 두 번째 등판에서 류현진은 올 시즌 최다 이닝에 이어 한 경기 최다 투구 수인 107개를 던지며 부상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넘어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피칭을 선보였다.

시즌 처음으로 홈런을 맞지 않은 것도 주목할 점이다. 그는 이전 5경기에서 매 경기 홈런을 내줘 피홈런 6개를 기록 중이었다.

류현진은 또 메이저리그 최고의 좌완 투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의 에이스 매디슨 벅가너를 넘어선 빛나는 투구를 선사했다.

벅가너는 6이닝 동안 4안타 2볼넷 8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더 길고, 더 완벽하게 던진 쪽은 류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현진이었다.

류현진은 다저스의 올 시즌 33번째 경기에서 8이닝을 추가해 도합 35%이닝으로 규정인양 요건을 단숨에 넘어서고 본격적으로 다승과 평균자책점 순위 대결을 펼치게 됐다.

ESPN에 따르면, 류현진은 이날 26명의 타자를 상대로 17번이나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쏘는 공격적인 투구로 경기를 풀어갔다.

팀이 33경기를 치른 이날 현재 시즌 35%이닝으로 규정인양(33이닝)을 채운 류현진은 내셔널리그(NL) 평균자책점 8위(2.55), 이닝당출루허용률(WHIP) 순위 4위(0.91)로 뛰어올랐다.

탈삼진(39개)을 볼넷(2개)으로 나눈 비율에선 19.50으로 2위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8.86)를 크게 따돌리고 압도적인 MLB 전체 1위이자 리그 1위를 질주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2019년 MLB 등판일지

날짜	상대팀	구장	이닝	타자	피홈런	피홈런	피홈런	피홈런	피홈런	피홈런	결과	
16	3월 29일	애리조나	다저스	6	4	1	1	0	8	82	1.50	12:5
26	4월 3일	샌프란시스코	다저스	7	6	2	2	1	0	5	87	6:5
4	4월 9일	세인트루이스	다저스	1	4	2	2	1	1	34	2.06	3:4
14	4월 21일	밀워키	다저스	5	6	2	2	2	1	9	92	3:10
24	4월 27일	피츠버그	다저스	7	8	2	2	1	0	10	105	2:96
34	5월 2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8	4	1	1	0	0	6	107	1:52

류현진은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에서도 시즌 4회로 NL 투수 중 공동 7위를 형성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청 역도 김희수 3관왕

정승우 銀3·손현호 銀3...보성군청 김남혁 銀3·양준영 銅2

광주시청과 보성군청이 제67회 전국 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및 제30회 전국 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에서 메달레이스를 펼쳤다.

광주시청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6개, 보성군청은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광주시청 김희수는 2일 강원도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71kg급에서 인상 85kg, 용상 110kg, 합계 195kg를 기록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남자 일반부에서는 정승우(23)가 96kg급에서 인상 138kg, 용상 180kg, 합계 318kg으로 은메달 3개를 획득했고, 손현호(19)가 81kg급에서 인상 140kg, 용상 177kg, 합계 317kg으로 역시 은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박희중 기자

보성군청 김남혁(19)도 남자일반부 +109kg급에서 인상 145kg, 용상 180kg, 합계 325kg을 들어올려 은메달 3개를 거머쥐었다.

인천에서 출신인 김남혁은 지난해 전국체전 105kg급 용상(183kg)과 합계(328kg)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한 유망주다.

보성군청 양준영(19)은 89kg급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양준영은 인상에서 137kg으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획득했다. 용상에서는 162kg으로 4위에 그쳤지만 합계에서 289kg으로 동메달을 품에 안았다. 양준영은 전북체고 출신으로 올해 보성군청에 등지를 틀었다. /박희중 기자